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이 숙
박사과정 지 선 례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k Lee

Doctoral Student : Seon Rye J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ersonal variables(gender, grade,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family variables(economical level,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school interest, academic achievement,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 and friend relationship)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The participants were 165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73 boys and 92 gir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chool interest was affected by depression, self-esteem and grade. Seco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was affected by depression and grade. Third, children's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 was affected by gender, grade, self-esteem, and parenting behaviors. Fourth, children's friend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s, self-esteem, and gender. Fifth,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as more influenced on children's personal variables than children's family variables.

주제어(Key Words) : 이혼가정 아동(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개인적 변인(personal variables), 가족 변인(family variables)

I. 서론

이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일생에 있어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의 하나이며 이혼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가족기능의 약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적응문제를 겪고 있다(Amato, 2004;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1997년부터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겪었으며 2000년 이후에 부모의 이혼을 맞은 아동이 100만 명(2000 - 2008년: 1,276,200명)이 넘었다(통계청, 2009). 2008년 한 해 동안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이혼한 부모가 전체의 54%를 차지하였고, 이중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4.5%, 2명인 가정이 25.5%, 3명인 가정이 4.0% 나타나 2008년 약 102,700명의 아동들이 새롭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통계청, 2009).

이혼은 아동의 심리, 인지, 행동,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등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부정적인 자아상, 문제행동, 학업부진, 친구와의 분리 등 많은 적응문제를 일으킨다(주소희, 2004; Amato, 2004; Amato & Keith, 199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한쪽부모의 상실과 생활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비난하게 되며 학업집중에 어려움을 느껴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권영미, 2000; 김보경, 2001; Amato, 1993;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고 한다. 학령기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인지적 성숙은 되어 있는 반면, 대처기술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거절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성적의 하락, 무단결석, 또래애착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김옥, 2000; 오은순, 1997; Amato, 2004). 또한 아동들은 이혼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위축과 고립감, 낮은 사회적 능력 등 부적응을 경험하고 사회성이 부족해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가진다(김문섭, 2004). 아동기는 Freud의 발달단계 중 잠복기로 이 시기 아동은 지적 활동, 학업에 열중하고 동성의 친구와 친하게 놀면서 규칙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도 넓혀간다(조복희, 2007, p. 48). 그런데 부모이혼으로 발달과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심리, 사회, 행동적응문제를 겪은 아동은 이후 성인기 부적응-일반가정의 동류보다 대학입학이나 졸업이 더 적고, 실업률이 더 높고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에서 더 문제를 나타내는 등-과 관련성이 높다는 심각성을 지닌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Twaite, Silitsky, & Luchow, 1998).

아동은 사회환경이 가정과 학교로 국한되어 사회적 활동

범위가 비교적 좁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학교는 아동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정 내 자원이 부족한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학교의 자원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학업성취, 친구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 생활태도 등 아동의 다양한 측면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고 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청소년기, 성인기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주요요인으로 밝혀지면서 아동기 학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연구하는 것은 이혼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을 살펴보는 데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김국화, 2006; 김민강, 2009; 김보경, 2001; 박연수, 2003; 지은선, 2001)은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의 비교를 통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부적응적 상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의 집단차이를 밝히는 것 보다는 이혼가정 아동 중에서 어떤 아동은 적응을 잘하고 어떤 아동은 그렇지 못한지 이혼가정 아동간의 학교적응 차이를 낳게 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소희, 2004)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선행 연구자들은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려 연구해왔고 그 결과 연구자들은 아동의 성별, 연령, 통제소재, 우울,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요인, 가족구조, 가족관계, 부모 양육태도 등의 가족 요인, 그리고 교사, 지역사회 특성 등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연수, 2003; 주소희, 2004; Stolberg, Camplair, Currier, & Wells, 1987).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환경 요인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연구하면서도 연구분석할 때는 세 범주의 영향력보다는 세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변인 위주로 이혼가정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박연수, 2003; 주소희, 2004).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가정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 아동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가족구성원과 가족환경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 등 범주별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자아존중감, 양육부모의 양육태도), 부정적인 영향(우울, 부모간 갈등)을 미치는 변인을 함께 선정하여 개인적 요인과 가족 요인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변인(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우울, 경제상태, 양육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간 갈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경제변화, 한부모의 양육, 가정생활 변화 등으로 가족자원의 변화, 감소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문제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족 내 자원이 부족한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에서도 적절하게 잘 적응하는 아동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이 아동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김민강, 2009; Amato, 2004). 그러나 부모간 적대감, 부모양육능력 등 가족요인이 아동의 개인적 요인들보다 아동의 적응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Stolberg et al., 1987)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진 연구가 소수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성별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별의 차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아들은 이혼 이후에 여아들보다 더 공격적이며 충동적, 규칙을 털 지키는 행동을 나타내며 친구, 교사와 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Kurdek, 1982; 오은순, 1996 재인용). 그러나 남아가 가족에 대한 염려 등으로 여아보다 책임감이 향상되었으며, 더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과 더 높은 학교적응을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고(이혜승, 2004)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김보경, 2001; 박연수 2003; Amato & Keith, 1991). 또한 남아가 더 학교적응수준이 낮다고 주장한 미국연구들은 어머니가 양육하는 남아가 더 많기 때문에 미국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는 일반화하기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혼반응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이 모든 발달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인생사건이나 더 어린 아동이 이혼에 보다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Lengua, Wolchik, & Braver, 1995). 왜냐하면 어린 아동일수록 가족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비양육부모의 떠남으로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며 가족 밖의 가능한 지원에 접촉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든 아동은 부부갈등기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이혼은 나이 든 아동의 이성발달에 큰 영향을 끼쳐 대인관계 문제, 위축, 학업성취면에서 뚜렷한 저하 등을 나타낸다고 한다(이혜승, 2004; Amato & Keith, 1991).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 등 이혼적응에 연령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등(김보경, 2001; Amato, 2004) 이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령차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 성취, 적응 등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학

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Marsh, 1990; 차유림, 2001 재인용).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갈등과 이혼 후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일반아동보다 낮았다(권영미, 2000; 이삼연, 2002; Amato & Keith, 1991).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은 사회적 유능성, 학교관련행동 점수가 의미있게 낮았다(권영미, 2000). 그러나 부모가 계속 갈등관계를 보이고 아동들도 원해서 이혼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아존중감과 책임감이 높아져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Gately & Schwebel, 199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겪게 된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Mahon, Yarcheski, & Yarcheski, 2003). 이혼가정 아동들은 한부모를 상실함으로써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하고 자신을 또래와 다른 사람으로 비하하는 등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며, 성인기의 우울과 관련성이 높다는 심각성을 지닌다(Wallerstein & Kelly, 1980; 주소희, 1992 재인용). 아동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습득하고 수행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 우울은 자신을 비하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 대인관계 형성능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우울한 아동은 학교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친구사귀기를 힘들어 하며, 규칙을 어기는 등의 다양한 행동문제가 나타났다(Amato, 2004; Twaite et al., 1998).

또한 아동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아동의 심리·사회성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아동의 학교성취와 친구관계 등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간의 심각하고 폭력적인 갈등은 아동의 적응문제를 일으킨다(Stolberg et al., 1987). Amato(1993)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부모간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적 공격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대인간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시키며 이로 인해 아동은 친구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이를 표출함으로써 학교에서 적응문제를 나타내게 된다. Camara와 Resnick(1988)은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적응문제와 직접적이고 강력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남아들에 의해 표현되는 부정적인 정서, 우울, 공격성은 그들의 아버지와 유사하다고 한다. Stolberg와 Bush(1985)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갈등은 이혼전이나 후 모두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 이혼 전에 갈등이 적은

가정에서 생활한 아동은 사회적 능력이 좋았고, 갈등이 줄어들면 학교에서의 생활, 읽기학습 등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혼 후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큰 변화를 겪는다(Amato, 2004; Lengua et al., 1995). 이혼은 가정의 소득감소를 초래하여, 아동들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학업 및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mato, 1993; Lengua et al., 1995; 김은정, 백혜정, 2007 재인용).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여 아동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지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 등(박연수, 2003; 주소희, 2003)과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혼 후 양육부모는 배우자의 도움없이 자녀양육, 생계와 가사책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일관적이고 거부적이고 덜 애정적인 양육을 하는 경향이 크며(Hetherington, Cox, & Cox, 1992,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4, 재인용) 또한 양육하는 어머니는 더 제한적이고 통제적이 된 반면 비양육 아버지는 더 허용적이고 관대하게 변화되었으나 그것이 아동에게 유익하지는 않았다. 반면, 혼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혼충격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혼 후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지적, 애정적, 아동들의 요구에 반응적, 일관성 있는 통제, 긍정적 훈육일 때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결과가 보고하고 있다(김민강, 2009; 차유림, 2000;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본 연구는 개인적 변인(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우울), 가족 변인(경제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간 갈등)이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각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의 이혼과 관련된 배경 특성(이혼당시 연령,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 이혼 후 환경변화),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우울)과 가족 변인(경제상태, 부모간 갈등, 양육부모의 양육태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남북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혼가정 아동들 중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이혼이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통계청, 2009),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점이어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12개의 초등학교와 9개의 복지관과 공부방에서 1400명의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후 그 중에서 부모가 이혼한 학생 192명 중 설문지 내용이 누락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이혼가정 아동 165명(초등학교 97명, 복지관과 공부방 6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73명, 여아 92명이고, 학년은 5학년 76명, 6학년 89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박현선(1998)이 사용한 척도를 초등학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학교흥미(학교,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이나 흥미정도, 7문항), 학업성취(학업태도, 학업성적, 5문항), 학교규범준수(4문항), 친구관계(5문항)등의 4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을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학교적응은 .80, 학교흥미 .69, 학업성취 .67, 학교규범준수 .64, 친구관계 .67이었다.

2)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rter(1982)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CC) 중 아동이 자신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전반적 자아가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을 역점수로 환산한 후 아동의 자

아존증감을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5이었다.

3)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1)가 개발하고 한유진(1993)이 번안 사용한 아동용 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했다. 본 연구는 CDI 중 우울정서(우울한 기분, 외로움), 흥미상실(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 자기비하(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 등 3영역을 사용하여 아동의 우울을 측정했다. CDI는 우울 평정 척도로서, 응답자는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술문 1개를 골라 선택한다. 이 척도는 1-3까지 3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진술 문항은 역점수를 환산하여 모든 문항을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기분이 들며 흥미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등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4) 경제상태

아동의 경제상태는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상태를 의미하며 하, 중, 상 3부분으로 분류하였다. 즉 가정의 경제상태는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경제상태이다.

5) 부모간의 갈등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기 전 생활하면서 갈등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부모간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가 개발한 갈등표출 척도(Conflict Tactics Scales)를 번역하여 오은순(1996)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1-4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전 부모간의 갈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 이었다.

6) 양육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 이숙(1990)의 양육행동 검사도구중 애정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애정 하위척도는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 요구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애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위한 자료분석은 SPSS통계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는데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또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혼가정 아동의 이혼과 관련된 배경 특성(이혼당시 연령,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 이혼 후 환경변화),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이혼과 관련된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이혼당시 연령을 보면 아동기 이전(0-6세)이 31%, 아동기(7-12)에 69%로 나타나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많았고,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여부를 살펴보면 비양육부모와 만나는 아동은 38%이고 나머지(62%)는 만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아동이 비양육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환경변화(이사/전학)를 보면 이사/전학한 아동이 62%/43.3%로 많은 아동이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부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부모의 상실로 인해 이미 상처를 받은 아동들은 환경변화로 인해 이전의 친밀한 사람, 익숙한 환경과 분리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의 전체평균은 57.51($SD = 8.20$)로 긍정적인 점수 63점에 미치지 못하고, 하위변인은 학교흥미($M = 19.58, SD = 3.74$), 학업성취($M = 12.23, SD = 2.79$), 학교규범준수($M = 11.01, SD = 2.35$), 친구관계($M = 14.70, SD = 2.82$)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학교적응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적응 중 친구관계가 가장 높았고 학업성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재확인하고 잔차간 자기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VIF계수는 1.01- 1.47범위로 1점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W계

수도 1.84- 2.20으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1) 개인적 변인 및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 및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적 변인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학교흥미,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흥미,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의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우울은 학교흥미, 학업성취, 친구관계와 의미있는 부정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교규범준수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학교흥미, 학업성취, 친구관계의 적응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갈등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양육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부모가 아동을 애정적이고 친밀하게 대할수록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의 적응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우울)과 가족 변인(경제상태, 부모간 갈등, 양육부모의 양육태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변인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을 각각 하나의 독립군으로 묶어 개인적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군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흥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beta = -.259, P < .01$), 자아존중감($\beta = .204, P < .05$), 학년($\beta = -.176, P < .0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흥미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혼가정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beta = -.330, P < .001$), 학년($\beta = -.152,$

$P < .05$)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1%이었다. 이혼가정 아동이 우울한 기분이 들며 흥미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등 우울이 높을수록, 6학년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교규범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규범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 = .321, P < .001$), 학년($\beta = -.209, P < .01$), 자아존중감($\beta = .197, P < .05$), 양육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beta = .190, P < .05$)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5.2%이었다. 성별이 여아일 때, 아동이 5학년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양육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이혼가정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울($\beta = -.380, P < .001$), 애정적 양육태도($\beta = .210, P < .01$), 자아존중감($\beta = .150, P < .05$), 성별($\beta = .132, P < .05$)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우울할수록, 양육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중 친구관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개인적, 가족 변인이 38.4%로 나타났다.

3)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첫째,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의 학교흥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은 21.6%이었고 2단계에서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의 설명력은 22.2%로 나타나 가족 변인의 설명력은 0.6%이었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흥미는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더 컸다.

둘째, 이혼가정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1단계에서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은 21.4%이었고 2단계에서 설명력은 23.1%로 나타나 가족 변인의 설명력은 1.7%이었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는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가족 변인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규범준수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1단계에서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은 22.3%이었고 2단계에서 설명력은 25.2%로 나타나 가족 변인의 설명력은 2.9%이었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규범준수는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의 친구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은 33.4%이었고 2단계에서 설명력은 38.4%로 나타나 가족 변인의 설명력은 5.0%이었다. 이혼가정 아동의 친구관계는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더 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아동의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우울)과 가족 변인(경제상태, 부모간 갈등, 양육부모의 양육태도)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각 변인들의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흥미, 학업성적,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 모든 요인에서 가족 변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 가족 변인의 영향보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승환, 2001; Muransky & DeMarie-Dreblow, 1995)와 같으나 가족 변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Stolberg 외(198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혼 후 양육부모는 자녀양육, 생계와 가사책임의 부담이 증가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Amato, 2004;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이러한 과잉부담을 안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개입보다는 아동 개인에 대한 개입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아동의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나타났으므로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 자신의 보호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사회사업가에 의한 개인별, 집단별 아동상담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학교적응에 관련된 요인에서 우울, 자아존중감등 아동의 개인적 심리특성이 네 가지 하위요인 중 각각 3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부모가 이혼한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우울이 심해지고(이

순형 외, 2004; Mahon et al., 2003),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권영미, 2000; 이삼연, 2002; Amato & Keith, 1991)으로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 일반아동보다 우울수준이 심하여 우울한 기분과 외로움을 더 타고 일상에서 흥미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Amato, 2004). 따라서 이러한 이혼가정 아동들은 학교의 부적응을 낳아 이후 청소년, 성인기에 정서적 문제가 더 심화되므로 이혼가정 아동들을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은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한 긍정적인 평가 상실과 부모의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자아존중감이 감소되면 학교적응에 부적응 영향을 미쳐 아동기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업능력과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작용의 전단계인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성별을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규범을 더 잘 준수하고 친구관계가 더 원만하여 외현적인 행동에서 여아가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부모의 이혼에 더 취약하며 더 공격적, 덜 통제된 행동 등 외현화 된 문제의 영역,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결과(오은순 1996; Kurdek, 1981)와 비슷하다.

이혼가정 아동 중 여아가 남아보다 이혼 후 학교적응능력이 더 높은 결과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제공되어 왔다. Smetana(1989)에 따르면, 남아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분노를 느끼며 재결합을 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수용하려 하며 더 복잡하고 혼합된 감정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관리가 되고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차이에 의한 연구

〈표 1〉 아동의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자아존중감	1							
2. 우울	-.498***	1						
3. 부모간 갈등	-.126	.192*	1					
4. 양육부모의 양육태도	.324***	-.359***	-.243**	1				
5. 학교흥미	.343***	-.382***	-.120	.170*	1			
6. 학업성취	.315***	-.420***	-.113	.256**	.376***	1		
7. 학교규범준수	.250**	-.196*	-.055	.297***	.409***	.424***	1	
8. 친구관계	.395***	-.538***	-.057	.383***	.173*	.286***	.250**	1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들을 근거로 Emery(1993)는 이혼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학년을 살펴보면 6학년이 5학년보다 학교흥미,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영역에서 더 낮은 학교적응을 나타냈다. 5, 6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이 시기 아동들은 인지

적으로는 부모의 이혼을 이해할 수 있으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6학년은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여서 발달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과 중학교 입학이란 환경변화를 앞두고 일반가정 아동들 역시 공부 스트

〈표 2〉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의 영향력

학교 흥미		모델 1		모델 2	
		B	β	B	β
아동의 개인적 변인	성별	.813	.108	.850	.113
	학년	-1.280	-.171*	-1.321	-.176*
	자아존중감	.244	.262*	.247	.204*
	우울	-.230	-.263**	.226	-.259**
아동의 가족 변인	경제상태			.248	.034
	부모갈등			-.044	-.072
	양육태도			-.031	-.051
F		11.025**		6.394***	
R ²		.216		.222	
ΔR ²				.006	
학업 성취		모델 1		모델 2	
		B	β	B	β
아동의 개인적 변인	성별	.359	.064	.294	.053
	학년	-.766	-.137	-.850	-.152*
	자아존중감	.123	.137	.118	.131
	우울	-.221	-.340***	-.214	-.330***
아동의 가족 변인	경제상태			-.646	-.120
	부모갈등			-.003	-.008
	양육태도			.043	.094
F		10.864**		6.750***	
R ²		.214		.231	
ΔR ²				.017	
학교규범준수		모델 1		모델 2	
		B	β	B	β
아동의 개인적 변인	성별	1.572	.333***	1.517	.321***
	학년	-1.078	-.229**	-.985	-.209**
	자아존중감	.174	.229**	.149	.197*
	우울	-.221	-.038	.003	.008
아동의 가족 변인	경제상태			-.142	.031
	부모갈등			.003	.008
	양육태도			.074	.190*
F		11.487***		7.544***	
R ²		.223		.252	
ΔR ²				.029	
친구관계		모델 1		모델 2	
		B	β	B	β
아동의 개인적 변인	성별	.788	.139*	.750	.132*
	학년	.367	.065	.685	.121
	자아존중감	.177	.95*	.137	.150*
	우울	-.282	-.429***	-.250	-.380***
아동의 가족 변인	경제상태			.472	.086
	부모갈등			.040	.088
	양육태도			.098	.210**
F		20.083***		14.005***	
R ²		.334		.384	
ΔR ²				.05	

주. 성별은 0: 남아 1: 여아로 가변수 처리
 학년은 0: 5학년 1: 6학년으로 가변수 처리
 * $p < .05$. ** $p < .01$ *** $p < .001$

레스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중앙일보, 2009. 10. 19). 그런데 이혼가정 아동들은 발달지위상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학교 부적응이 높다고 할 수 있다(Stolberg et al., 1987).

다섯째, 양육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학교규범준수, 아동의 친구관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이라 하더라도 양육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면 자녀에게 미치는 구조적 결손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민강, 2009; Amato, 2004).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 결손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혼가정 한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취약한 한부모의 접근이 쉬운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한부모 취업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혼한 부모의 부모교육은 예방적 성격을 가짐(Kelly & Emery, 2004)으로 이후의 아동의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여섯째, 경제상태는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박연수(2003), 주소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보다는 아동의 우울, 자아존중감 등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후援 등 경제적 대책과 더불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적 탄력성, 사회성 발달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시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살펴보고 풍부한 기초자료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의 학교적응은 가족 변인보다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더 컸다. 가족 변인의 영향력은 다소 약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가족 변인의 중재역할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전남북 지역의 초등학교, 복지관에서 5, 6학년 아동 일부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령과 여러 지역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 변인만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이혼으로 인해 감소된 자원과 지원을 보충해줄 수 있는 학교환경, 사회환경도 포함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의 아동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 가족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고 이혼가정 아동들이 보다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영미(2000).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국화(2006).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관련 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섭(2004). 이혼 가정 아동의 특성 및 상담.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생활연구**, 9, 1-14.
- 김민강(2009).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탐색.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 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옥(2000).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애착.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백혜정(2007). 이혼으로 인한 가정상실, 경제소득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79-103.
- 동승자(2000). 이혼가정 아동의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연수(2004).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결정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 이혜승(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연구**, 11(1), 421-441.
- 장미애(2004).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2007).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주소희(2004).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일보(2009. 10. 19). '이혼 고아' 매년 1000여명.
- 지은선(2001).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유림(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9). **2008년 이혼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한유진(1993).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ato, P. D.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Amato, P. R.(1993). Child'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mato, P. R.(2004).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69-1287.
- Camara, K. A., & Resnick, G.(1988). Interparental conflict and cooperation: factors moderating children's post-divorces adjustment. *Psychologie Bulletin*, 103, 169-195.
- Emery, R. E.(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e Bulletin*, 92, 310-330.
- Gately, D. W., & Schwebel, A. I.(1991). The challenge model of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explaining favorable postdivorce outcomes i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1), 60-81.
- Guidubaldi, J., Perry, J. D., & Nastasi, B. K.(1987). Growing up in a divorced family: intial an long-term perspectives on children's adjustment. *Applied Social Psychology Annual*, 7, 203-237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etherington, E. M.(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8.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J. Child Psychol. Psychiat*, 40(1), 129-140.
- Hetherington, M. E., Cox, M., & Cox, R.(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Kelly, J. B., & Emery, R. B.(2004).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52(4), 352-362.
- Kurdek, L. A.(1981).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8), 856-866.
- Lengua, I. J., Wolchik, S. A., & Braver, S. L.(1995). Understand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3/4), 25-54.
- Mahon, N. E., Yarcheski, A., & Yarcheski, T. J.(2003).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8(4), 267-273.
- Muransky, J. M., & DeMarie-Dreblow, D.(1995).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4), 187-196.
- Stolberg, A. L., & Bush, J. P.(1985). A path analysis of factors predict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4(1), 49-54.
- Stolberg, A. L., Camplair, C., Currier, K., & Wells, M. J.(1987). Individu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1(1), 51-70.
- Twaite, J. A., Silitsky, D., & Luchow, A. K.(1998). Children of Divorce: Adjustment, Parental Conflict, Custody, Remarriage,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ians. London: Jason Aronson.

접 수 일 : 2010년 1월 18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29일